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9월 18일 (제1167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믿음과 순종

나는 신학교 개강에 앞서 신학생들에게 영적 훈련을 시키고자 기도원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신학장 이시대 목사는 교수진들도 이에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더는 이를 전국 교역자 금식기도로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나는 그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 교역자에게 기도원으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내가 깊이 기도를 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원래 취지대로 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감동을 주셨다. 나는 이 사실을 학장에게 전했다. 그랬더니 학장은 두말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한다.

이시대 목사의 의견은 분명히 좋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교역자들도 금식기도 해야 합니다. 이왕 발표했는데 그냥 하시죠.’라고 토 달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는 나를 믿기 때문이다. 내가 당연히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 것을 그는 믿는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이삭을 통해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말씀을 확고히 믿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올림픽공원으로 교회를 옮기라고 말씀하셨을 때, 때마침 어느 성도가 현찰 300억을 들고 와 성전을 짓자고 했다.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부른다. 거기에는 믿음의 선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노아가 비 한 방울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이야기 등등... ‘믿음의 행적’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의 행적을 말한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믿음’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15:22).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2:26).

목사님은 명절 때가 되면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는 설교로 우리의 영적 정신무장을 주문하신다. 그러나 어찌 이것이 명절 때에 국한된 문제이겠는가. 이는 우리 인생의 바다에 수시로 넘실대는 파도와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 사업관계, 정치, 외교 등을 망라하는 수많은 문제에는 반드시 주고받는 타협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길을 찾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

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찌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3:16~18).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찰 배나 뜨겁게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아니했습니다. 이에 그들을 참소하던 자

어디 이들뿐입니까? 초대교회 시절,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도 구한말 김대건 신부의 순교가 있었고, 제사를 거부하다 엄청난 핍박과 순교를 당한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또한 일제 치하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는 집안의 장손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제사를 거부하다 집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래도 타협하지 않았더니 우리 집안에

모든 것은 타협하라

신앙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봉우 이초석 목사

차든지 덥든지 분명한 자가 되라

이 있습니다. 신앙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전들이 타협 없는 신앙의 길을 가느라 무수한 죽임,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모든 신앙인의 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으나 느부갓네살왕의 총애를 받으며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를 시기한 무리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왕에게 참소합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왕에게 고발한 거지요. 느부갓네살왕은 그들을 아꺽기에 기회를 주고자 했지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

들이 오히려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더욱 높임을 받았습니다(단3:26~30).

다리오왕 치하에 세 총리 중 하나로 출세한 다니엘도 동일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왕으로 하여금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는 조서에 사인을 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매일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방백들의 참소에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으나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참소하던 자들이 사자 밥이 되었고, 다니엘은 다리오왕 치세 뿐 아니라 고레스왕 치세에까지 행통했습니다(단6:3~28).

동생들, 아들, 조카까지 주의 종이 되었고, 저를 내쫓았던 어머니까지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돼지 대가리 앞에 절하라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명절 제사에 전전궁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앙만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이를 거부하고 더욱 승승장구하며, 주일에 일하라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나와 사업가로 성공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면 하라는 겁니다(고전10:22).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 믿음의 선전들처럼, 처처럼 타협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은택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26:17)

남의 일에 참견 말고 네 일에 충실하라

“남의 일에 참견 말고 네 일에 충실하라. 남의 잔치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시간이 어디 있냐? 네 일에 전념해야만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번 추석 때 손자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침묵하며 철저히 자기 일에 매진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자들은 이 간섭 저 간섭, 이 참견 저 참견하느라 삶의 진도가 나가지 못해 매일 그날이 그날이요, 매일 그 밤에 그 반찬입니다. 세상에서야 이런 사람을 오지랖이 넓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작 자기 집 석가래는 썩고 있다는 거지요. 세상 간섭 다하는데 진척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습니다.

입으로 말하지 말고
결과로 말하라

내 땅을 기름지게 해놓고 남의 땅을 살펴야지요. 남의 잔치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려면 내가 감 사다 놓으면서, 배 사다 놓으면서 말해야 힘이 있지요. 보태주는 것도 없으면서 ‘감 놔라 배추 놔라’ 하면 그 집에서 좋아할까요? ‘왜 와서 참견이야?’ 할 겁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골목에서 명석을 깔아놓고 바둑을 둘 때면 약방의 감초처럼 꼭 끼어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두라, 저쪽에 저렇게 두라 훈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이쪽 저쪽에서 ‘왜 와서 참견이냐? 어여 가던 길이나 가!’라고 욕을 한 사발 먹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잠26:17). 개의 귀를 만지면 안 됩니다. 엄청 싫어해서 그냥 물어버리거든요.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는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자 말라’(벧전4:15)고 경고했고, 바울도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치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딤후5:22)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참견하는 게 사랑이 아님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더러 자기 형에게 자기에게도 유업을 나누어 주라고 말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일은 예수님의 지혜와 역량으로 얼마든지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

느냐”(눅12:14)라고 말씀하시며,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사람과 삼시에, 그리고 육시와 구시, 심지어 십일시에 들어와 일한 사람조차도 일을 마친 후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 다. 그러자 아침부터 일한 자가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재들은 늦게 왔지 않느냐? 그런데 왜 같은 돈을 주느냐?” 그러자 주인은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고, 주었는데 무슨 말이 많은가? 저 사람의 품삯은 내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 너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



총회장 이초석 목사

라.”고 합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만

하면 되고, 자기 길만 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세 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시면서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베드로가 가게 될 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요21:18). 베드로가 순교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옆에 있던 요한을 가리키며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 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요21:22) 이 말인즉 ‘다른 사람 일에 쓸데없는 관심 갖지 말고 네게 주어진 일이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 말고 내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충실(充實), 곧 채워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일에 전심전력하여 목적인 바를 이루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행1:6).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때와

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

요”(행1:7).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소관이니 상관 말고 네 일이나 해라.’ 하신 것입니다. ‘네 일’, 곧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행1:8)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참견 말고 믿을 생활 잘하고, 복음을 전파하면 된다. 그러면 언제 오시든지 들림 받게 되고, 늦게 오시면 주 안에서 죽게 되므로 복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는 열심히 성도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정치인들도 여당, 야당이 어찌느니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학생은 공부하면 되고요. 자동차의 라이트가 언제 브레이크에 간섭하던가요? 핸들이 자기 할 일은 놓고 액셀러레이터에 이래라저래라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기에 자동차가 움직이고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겁니다.

목적지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

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목표만 보고 귀는 닫고 가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에 참견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에 바울이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했고, 우리에게 13서신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남의 일이나 말에 신경을 썼다면 오늘날의 이초석 목사는 없었을 것이고, 예수 중심교단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별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참견하고 변명하고 간섭했더라면 저는 여전히 철산리 지하에서 토닥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세계 73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꿈도 못 꾸었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심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22:29).

성공한 자들은
자기 일에 충실한 자다

“아니, 남도 살피면서 살아야죠.” 하십니까? 참견과 나눔은 다른 겁니다. 참견하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쓸데없이 관여하는 것이고, 나눔과 배풀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줄 수 있게, 나눌 수 있게 내가 먼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 일에 충실(充實)해야 합니다. 나를 채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고 하셨습니다. 네가 먼저 구원받고, 네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남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듯, 내가 열매가 있어야 그것으로 남과 나누고 배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남의 일에 참견할 시간에 내 갈 길이나 열심히 갑시다. 내 일에 충실하여 열매를 맺읍시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열매를 나누는 자들이 됩시다.

외야수가 관중의 소리에 다 반응한다면 일류선수가 못됩니다. 마라토너가 관중의 소리에 일일이 신경 쓴다면 순위에 들 수 없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남의 일에 참견 말고 내 일만 합시다.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전3:22). 할렐루야!

:: 객원컬럼 ::

시작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을 위해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선택과 시작은 우리의 몫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천국과 지옥, 그리고 생사화복의 선택권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과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지 않습니다. 가만히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람개비를 들고 뛰어야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공활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니라”(롬9:18).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도와주십니다. 연을 날리고자 할 때 땅에는 바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연을 위로 띄워 올리면 위에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

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일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거의 회복이 되었는데, 수요일예배에는 코로나 이전만큼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삶이 편안해질 때 선진국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던 자들이 주일에만 출석하는 선데이 크리스천이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요일예배 활성화를 위해 종들과 믿음의 일꾼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오지 않던 성도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두가 전심전력으로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열심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전도가 되느냐?”, “데리고 와 봤자 교회를 다 떠날 건데 왜 헛수고를 하느냐?”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1세기 교회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흠뻑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성경에세이 ::

진리(眞理)

여보게!

하나님은 6천 년 동안 하신 말씀을 되하시고, 예수님도 2천 년 동안 하신 말씀을 되하시고 계시지. 내가 38년 동안 묵회를 했는데 내게도 달리 말씀하신 적이 없네. 38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니 당연히 내 설교도 같은 말씀을 되하곤 하지.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라네. 진리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잠12:19)는 잠언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것이기 때문이야. 달리 말하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변함이 있던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여 영원히 서기 때문이지(시 18:30, 사40:8).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빠서도 안 되고 보태서도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

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22:18~19).

여보게!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오늘보다 내일 몇 배 부풀려있기도 하고, 오늘은 이랬는데 다음에는 저렇더라며 윤색되기도 하지. 왜 그러냐면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쳤을지 몰라도 자신은 나중에 하나님께 호된 물음을 받게 될 거야. 거짓을 말했으니까.

사람은 자고로 한결같아야 하네.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야. 그것은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가능하지.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총과 지혜가 함께 하니 만사형통하게 된다는.

거짓은 물론 핑계나 변명조차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보게. 진실된 자로 살게나. 그것이 비록 더디 가는 것 같으나 그것이 정도(正道)요, 그것이 영원히 가는 길이니까.

朋友

:: 오늘의 메시지 ::

낮은 담

부모님의 제수도 한 달 살기가 시작되었다. 덕분에 부모님도 뵈러 갈 겸 우리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예쁜 곳, 맛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구경을 하던 중 낮은 담을 보게 되었다. 소박하고 단순하게 쌓아진 낮은 담을 보는 순간 편안함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사실 살면서 낮은 담을 처음 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무엇인가 달랐다. 여행이 주는 선물은 늘 같은 것도 새롭게 느껴진다.

낮선 이방인에 대한 경계가 없는 낮은 담을 넘어서 바라보니 집안이 훤히 보이고, 마당에서는 사람들의 자연스런 움직임이 보였다. 마치 나에게 들어오라 손짓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차곡차곡 돌들로 쌓아진 차분하고, 단아한 분위기의 낮은 담은 내 마음까지 위로해주었다. 왜 그리도 내 마음이 그렇게 놓였던 것일까? 맑고 깨끗한 공기 속 질서 없이 피

어난 꽃들 때문이었을까? 평범하고도 담백한 담벼락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었다. 누군가는 내게 말했다. 나이가 들어서라고. 이 나른하고 편안한 느낌을 부족한 나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멋스럽지 않아서, 그래서 더 매력적인 낮은 담은 낮선 이에게 편안함을 가득히 안겨주었다.

문득 나는 내 사람들에게 낮은 담이 되어주었던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잠기게 되었다. 부끄럽지만 그렇지 못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삶에 부딪히며 지내느라 높은 담이 되어버렸다. 이제부터라도 나의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낮은 담이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뜻하고 마음이 놓이는 열려 있는 담 말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은 그런 사람 말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요일3:11).

이인영 집사



:: 소망의 언덕 ::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오늘은 한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수련회. 1차 워크샵에서 이시대 목사님께서 는 오랜만에 재개되는 수련회를 철저히 준비, 점검하여 역대 최고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사들과 함께 작정기도 하던 중 ‘예썸페(예수님과 함께 하는 썸머 페스티벌)’라는 7주 연속 총동원을 통해 영혼들을 불러 모을 수 있도록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배 후에 2부 순서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진행했는데 감사하게도 첫 주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보내주셨고, 아이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한 친구가 끼어들어서 휘방을 하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윤창현 학생.

“야! 너희들 수련회 가려고? 거길 왜 가? 우리, 교회에 축구 하러 왔잖아.”

꽤 영향력이 있는 친구였기에 그의 휘방으로 많은 친구들이 수련회에 오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꼭 쥐고 오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본 순간 ‘아, 성령님이 하셨구나!’ 했습니다.

오늘 나는 학생의 이야기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 열심을 내시는 성도님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니 낙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

이현승 목사

경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다

어린 시절 엄마를 따라 예수중심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그때부터 목사님께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경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다.’이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많은 해프닝이 생긴다. 11살이 된 첫째 아이와는 요즘 자주 티격태격하는데, 그중 하나가 자신의 말이 맞다고 우기는 일로 인해서이다. 엄마인 내가 보기에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아이는 자꾸 자기의 말이 맞다고 우긴다. 그런 일로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하고 몇 번의 트러블이 있는 후로 아이에게 직접 해보게 한다. 그러면 심중팔구는 엄마의 말이 맞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물론 상황이 길어지고,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는 직접 경험해보게 되고, 성공과 실패를 하며 지식을 얻게 된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로 상황이 아름답게(?) 마무리된다. 이러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

도 알게 되는 것 같다. ‘내가 이래서 답답하셨구나.’, ‘이럴 때 못마땅하셨구나.’ 하는 마음들 말이다. 목사님께서도 ‘경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왔던 터라 그렇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내가 경험해보고 깨달아보니 정말 경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구나 하고 와닿았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이치리라. 잡는 과정을 통해서 잡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잡는지 경험을 해야 나중에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육아의 최종 목표는 독립이듯 부모는 아이에게 많은 경험을 시켜줌으로써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 또한 성장하게 된다. 인생을 살다 보니 이해 안 되는 사람도 많고, 답답한 상황도 많았다. ‘왜 저렇까,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저거 잘못

됐는데...’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예전 경험을 떠올리며 마음을 제어하곤 한다. ‘까닭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상황이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그리고 정효경, 너나 잘하라고. 요즘 문화와 시대적인 배경을 앞세우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과 뜻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제사와 고사를 문화라고 인정하여 신앙과 타협하기도 하며, 아이들에게 아동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그렇다. 학대와 훈육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로서의 책임이자 사명이다. 목사님 말씀처럼 자기의 경험한 바를 어떤 문화적인 지식 앞에 팔아먹는 자야말로 어리석은 자가 아닐까?

정효경 집사
happy_holly@naver.com

사랑해서 그래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안수기도와 귀신 축사 사역을 통해 병 고침을 받거나 어려운 환경에서 기적과 같은 기도 응답을 받아 교회를 다니게 된 분들이 상당수이다. 나 역시도 어렸을 적 어머니께서 목사님의 안수기도로 병이 나아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우리 교회엔 열의로 가득 찬 분들이 참 많다. 사실 내 눈에는 조금 센 분들, 좀 유난인 분들로도 보였다.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니 그럴 법도 하지만, 그러다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과연 성령 충만일까, 아니면 자기만족일까. 얼마전 그 의문은 비로소 해소되었다. 최근 교회에 큰 사고들이 있었다. 한 장로님께서 교회 일에 충성과 헌신으로 기도원 식당 공사를 하시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소천하셨고, 한 청년은 성전에서 스크린 작업을 하다 떨어져 크게 다쳤다. 예배 중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꾸짖 섞인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왜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유난이죠? 왜 늘 이렇게 일을 밀어붙일까요? 그러다 저렇게 사고가 나는 게 맞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러죠?” 그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강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다. “애네들은 나를 사랑해서 그래.” 전율이 오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난이라 생각했던 그분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저 사랑이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마26:8~10). 박찬영 집사

JC ACADEMY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노량진 교육관(드림스퀘어) 문의 02. 533. 9191

:: 짧은 이야기 ::

전념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설교 때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찾아내고, 그 일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목숨을 걸 만한 값진 일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만, 그 일을 하는 데도

대단한 용기와 각오가 동반되는 것이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와 폭우가 쏟아지는 길을 걷다가 낙뢰가 떨어져 그 자리에서 친구는 죽고 자신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는 학업을 중단하고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친 채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자신이 목숨을 던져 해야 할 일을 찾게 되었습니

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목숨을 걸만한 일은 무엇입니까? 돈 버는 일입니까? 아니면 명예를 얻는 일입니까? 그것들을 위해 노력은 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 한 목숨 바쳐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 글꾼의 신앙 ::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예루살렘교회로 신앙의 터전을 옮긴 지 얼마 후 1990년 4월 22일 조장 대표로 나가서 이초석 목사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처음으로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목사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안수를 받았고 신앙상담을 했었다. 내가 목사님께 상담하지 못했던 것은 차량 봉사를 했으므로 의정부 성도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었다. 또 교회를 옮겨온 일 외에 특별히 상담할 일도 없었다. 그렇게 목사님께 나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한 채 먼발치에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었다. 조장 임명장을 받는 날, 나는 친지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이유는 4월 21일 토요일, 육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므로 장례식에 참석한 친지들이 아버가 죽었는데 교회 간다고 이구동성으로 비난을 했고, 만아들로 상주인 내가 대문 밖을 나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유교의 전통(傳統)장례법이라며 비난을 했다. 한마디로 아버가 죽었으니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눅9:60)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세상없어도 주일은 성수하는 믿음이였다. 한 번도 주일을 범하거나 수요예배, 철야예배, 구역예배를 빠지지 않는 신앙이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날 기독교식 장례를 마쳤다. 친지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여비도 자신들의 조의금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였다. 교회 간다는 비난은 받았지만 예수 믿으라고 분명히 전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또한 우리 부부는 둘 다 조장이였다. 구역예배를 돌아가며 드리는데 내 차례, 내 아내 차례와 내 구역 식구들 중에 자기 차례에 갑자기 예배를 못 드리면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내 아내 구역 식구가 못 드리는 구역예배도 우리 집에서 드리니 우리 집에는 1주일에 두 번, 또는 매주 구역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있었다. 우리 집에서 예배를 자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였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승호 목사

